

세상에 모든 일은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다.
아무리 좋은 일도 100%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나쁜 것이 얼마쯤 숨어 있다. 그런가 하면 제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100% 다 나쁜 것이 아니고 한 편에는 좋은 면이 있기도 하다.
즉 빛과 그림자,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고, 기쁨과 슬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이 면이 뒤엉켜 있다.
그 때에 어느 것을 보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여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실패하여 불행해지기도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정탐을 하는데,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땅의 어두운 면을 보고 악평을 하며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2명만이 밝게 보고 좋게 평을 하며 긍정적으로 말한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 역시 두 파로 나뉘었는데, 대부분의 백성이 어두운 면을 본 부정적인 쪽에 동조하여 원망 불평하다가 징벌 받는 길을 걸어갔고, 밝게 보고 긍정적인 쪽에 서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하여 적은 수에 불과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 받을 길은 ?
첫째, 어두움 보다 밝게 보아라.
밝게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시 119:105) “말씀은 곧 빛이요 예수님이라”(요 1:1-9)
세상만사 모든 일을, 인간적인 면에서 보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 합당하게 보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보는 것은 어둡게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생각하는 것은 밝게 보는 것이다
여기 열 명의 정탐과 다수의 백성은 인간의 눈으로 어둡게 보았다. 『가나안 땅 모든 사람은 키가 크고 강한 대장부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하찮은 존재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가나안 땅 사람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며 주저앉았다. 』(31-33, 14:1-4)

두 명 정탐과 소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밝게 보았다.
『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 주민이 제 아무리 강하고 성이 건고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므로 그 강한 주민은 이스라엘의 밥이 될 것이니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는 것이었다. 』(30, 14:6-10)

둘째, 부정하기보다 긍정의 눈으로 보아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결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은, 자기 능력보다 조금만 큰일을 만나도 부정을 하고 주저앉는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에서 자기 능력보다 작은 일만 해서는 잘 될 수가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자기 실력보다 큰일을 감당할 때에 잘되기도 하고 발전하며 성공을 한다.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열 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족속에게 잡혀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 하셨겠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가나안 족속보다 열배, 백배나 강한 세력과 맞붙는다 해도 승리를 긍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가 벌을 받은 것이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믿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자.

셋째,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보아라.
가나안 땅이 주민을 삼키는 황폐한 골짜기도 있으나, 젓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어깨에 메야할 정도의 비옥한 땅도 있다. 열 명의 정탐과 함께한 사람들은 나쁜 면을 크게 생각하여 원망 불평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다가 실패했고, 두 명의 정탐과 함께 한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 크고 강한 것은 그만큼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라 좋은 면을 보고 전진을 했고, 12명 정탐꾼의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 (14:36-38)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물과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고, 전진해야 한다.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은, 다수의 결의를 따라서는 안 된다. 소수라도 말씀과 믿음과 좋은 면을 보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부목사 : 석 진 건 010-9061-0312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21 (새 찬송가 2, 21)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 우리가 올라가서 곧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고

○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말하는데

●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크고 강한 자들이라

● 거기서 또 네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다. - 아 멘 -

찬 송 : 142 (새 찬송가 148)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민수기 13 : 25 ~ 33 (구 217)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밝게 보고 전진하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55 (새 찬송가 370)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12 월 안내]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림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김정란 이연순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조상희 집사 (다음 최명희 집사)

기 도 : 오정순 권사 (다음 강호원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사 회 : 임동순 집사 (다음 박영수 집사)

기 도 : 이춘희 집사 (다음 채혜경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석진건 목사, 김정환 장로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석진건 목사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사랑 나눔 안내

교우나 이웃들 중에 쌀이나 김치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010-3861-7009)

2. 화요 전도사역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3.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열립니다.

4.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13일 밤 금요기도회는 주일학교 유 초등부 교사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5. 결혼식 축하 안내

이공주 김경애 집사님의 따님 유경 양의 결혼식이

12월 14일(토) 오전 11시에 상무지구 송정리 중간에 있는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최영순 님,

풍암동 주택

☺ 주재홍 이태효 님,

풍암동 주택

☺ 정용재 님,

삼능남양 106동

오늘 말씀 요약 (12 / 15) 2013

제 목 :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성경말씀 : 마태복음 15 : 8 ~ 14

연말이다.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새해를 잘 맞이하여 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하고 넉넉하게 빈 마음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마음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오늘 말씀을 보면, “천부(天父)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뽑아버릴 것이니,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서 하나님께서 뽑아버릴 만한 것들을 먼저 뽑아서 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비울 수가 있고, 그 비운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속에는,
첫째,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있다.

- 1, 믿음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존재하심이 믿어지고, 믿음에 믿음이 더해져서 하나님과 말씀과 그 관계된 모든 것이 더 많이 믿어지고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더 좋게 믿어지며,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며 힘을 얻어 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것들이다.
- 2, 소망이다.
인생의 삶은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스한 봄날도 있고 북풍한설 꿈꿨던 얼어붙는 추운 날도 있다. 그러나 삶의 어떤 환경에서든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내일은 더 좋을 것이며 장래에는 더 좋을 것이며 죽음 건너편 내세에는 더 좋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것들이다.
- 3,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 된 것만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사랑하고 포용하며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좋아져서 그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것들이다.
- 4, 말씀이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좋고 듣는 것이 좋으며, 그 말씀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뜻 진리를

깨달아 더 알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달콤해지며, 더 실천하고 이루고자 하면서, 그에 따르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 이는 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들이다.

둘째, 자기가 심은 것이 있다.

- 1, 경험을 통해서 얻고 깨달은 것이다.
인생을 살다보면 현실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헤쳐 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깨닫고 터득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쌓여 자기 재산이 되고 이것을 신뢰한다.
- 2,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이다.
학식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하여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지식이 되어 자기 속에 자리를 잡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자기 이론을 펼치고 사상으로 굳어져 신뢰하는데, 이렇게 경험을 통해 얻고 깨달은 것과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확신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자기에게 심은 것들이다. (바리새인과 인본주의)

셋째, 마귀가 심은 것이 있다. (요8:44)

- 1, 욕심이다.
성실한 노력과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잘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크게 되어도 욕심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실한 노력도 없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엇을 얻고자 하며 누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여도 욕심이며, 마귀가 사람에게 심어 놓는 것이다.
- 2, 살인이다.
죽이고자 하는 것은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기에 살인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셨다. (요일3:15) 계속적으로 미워하고 실제 살인하는 것은 마귀가 심는 것이다.
- 3, 거짓이다.
진리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만들어 내고 거짓을 따라가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숭배하는 것은 다 마귀가 심은 것이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은, 욕심, 살인, 거짓이 뒤엉켜 있고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 뽑아내야 한다. 또 인본주의, 사람 자신이 심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될 때는 뽑아내야 한다. 우리가 뽑아낼 때는 별 아픔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따른다. 뽑아 낸 다는 것은 “회개를 하면서 그것들을 멀리 하는 것이다.” 뽑아내면 우리를 비울 수가 있고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것이 많아져 축복을 받는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 압 교 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 임 목 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부목사 : 석 진 건 010-9061-0312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성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성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25 (새 찬송가 1, 25)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 나를 헛되이 경배함으로다. 하시니

○ 제자들이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 마음에 결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 아 멘 -

찬 송 : 118 (새 찬송가 118)

기 도 : 석진건 목사

성경봉독 : 목 사 : 마태복음 15 : 8-14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04 (새 찬송가 104)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12 월 안내]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김정란 이인순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최명희 집사 (다음 김영님 집사)

기 도 : 강호원 집사 (다음 최순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사 회 : 박영수 집사 (다음 이경순 집사)

기 도 : 채혜경 집사 (다음 홍희석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석진건 목사, 김정환 장로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석진건 목사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사랑 나눔 안내

교우나 이웃들 중에 쌀이나 김치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010-3861-7009)

2. 남녀 전도회 월례회 겸 총회

오전 예배 후 12시 10분 예전대로 각실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예배는 연전도연합회 헌신예배입니다.

3. 화요 전도사역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4.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열립니다.

5.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20일 밤 금요기도회는 남녀 전도회 회장단과 임원진의

주관으로 드립니다.

6. 성탄절 안내

① 특별 기도회 23일(월)~새해 1월 5일(주)까지(연말연시)

② 성경정독 : 요한복음에서 성경 퀴즈

☆ 24일 밤 7시 성탄전야 축제, 가족별 찬양경연과

초, 중, 고, 청년부의 축하 경연

③ 성탄절 새벽 전 교인 참여 축복기도회

④ 성탄절 낮 11시 예배 전교인 전 가족 참여 찬양예배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정용재 님,

삼능남양 106동

오늘 말씀 요약 (12 / 22) 2013

제 목 :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성경말씀 : 고린도전서 5 : 6 ~ 8

성경 말씀에서 누룩은 사람의 생활을 타락시키고 부패시켜 멸망 길로 이끌어 가는 죄악으로 묘사를 하였다.
그래서 3,500 년 전 구약시대에도 중요한 명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했고(출12:15~20), 이 말씀은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왔으며,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죄와 거짓된 악 사상으로 묘사하며 그 해를 지적하시고 누룩을 멀리 할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누룩은,
첫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마16:6, 11~12)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학문, 경제까지 주름잡고 있는 지도자 계급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특권 의식과 잘못 된 신앙 사상을 주장하며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타락시켰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제도와 의식을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여 마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율법주의로 나가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을 하므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부활과 영과 천사와 사후 세계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음을, 허무맹랑하게 여겨 역시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독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

오늘날도 율법을 행하거나 어떤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거나 무엇을 행하고 갖추어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안식교와 신천지 등은 다 바리새인과 같은 멸망 길에 있는 자들이다.

또한 영혼과 부활과 천국세계를 부인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합리적인 것만 믿는 현대 신학이나 급진 좌경 신학계통은 다 사두개인들과 같아 역시 멸망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위의 두 종류의 누룩을 조심하고 멀리해야 한다.

둘째, 헤롯의 누룩이다. (막8:15)

헤롯은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로마에서 세운 왕으로 허수아비다. 즉 출세를 목적으로 잘못된 정권에 아부하고 기생하며, 민족을 등지고, 돈과 권력과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패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이 헤롯 당원들은 육신의 출세와 권력을 제일로 삼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음을 부정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음과 기독교를 부정하며, 현실의 권력에 기대어, 승진, 출세, 사업, 돈, 패락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사람을 부패케 하는 헤롯당 누룩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사상과 이런 누룩들은 멀리하고 주의해야 한다.

셋째, 여러 가지 죄악의 묵은 누룩이다. (고전 5:6~8)

본문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 말씀했는데,

“묵은 누룩”이란 명절의 풍습을 통하여 오래 전부터 뿌리 깊이 내려온 타락된 문화와 그에 따르는 죄악들을 뜻한다.

현실을 보아도 성탄절과 연말연시 명절에 즈음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 깊이 박혀 있는 타락된 문화와 죄악이 많이 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바로 알지 못하면서 고가나 명품의 선물을 탐하고 또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뇌물이 오고가고 있으며, 성탄절이다, 망년회다, 송년회다 하면서 무슨 죄를 저지른다 해도 괜찮을 것처럼, 어떤 방탕과 타락을 한다 해도 괜찮을 것처럼 행하는, 오랫동안 내려온 부패한 문화와 풍습이 묵은 누룩이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이라 하였으니,

본문 말씀 바로 전에 1~5절과 9~10절 말씀의 내용들을 뜻한다.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해괴한 음행을 저질렀고 또 그런 죄악을 용납하고 회개도 없이 오히려 교만하게 생활한, 이런 일들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며,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 잡신을 섬기는 풍습을 따른 것도 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다.

이제 우리는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멀리해야 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당의 누룩도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이 없는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잘한 일은 무엇이고 잘못된 일은 무엇인가? 잘못된 일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해야 하며, 잘한 일들은 더 잘하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는 아쉬운 중에도 축복받는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될 것이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부목사 : 석 진 건 010-9061-0312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약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30 (새 찬송가 2, 14)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너희의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 이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 아 멘 -

찬 송 : 96 (새 찬송가 84)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고린도전서 5 : 6 ~ 8 (신 268)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68 (새 찬송가 180)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섭기는 사람들 [12 월 안내]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김정란 이인순 유덕남

주 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여전도연합헌신예배

사 회 : 김영님 집사 (다음 홍의남 장로)

기 도 : 최순희 집사 (다음 이옥심 권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사 회 : 이경순 집사 (다음 유정숙 집사)

기 도 : 홍희석 집사 (다음 김미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석진건 목사, 김정환 장로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석진건 목사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사랑 나눔 안내

교우나 이웃들 중에 쌀이나 김치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010-3861-7009)

2. 여전도회 연합 총회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여전도연합회 헌신예배입니다.
예배 후에는 여전도회 연합 총회로 모입니다.

3. 화요 전도사역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4. 성탄절 안내

① 특별 기도회 23일(월)~새해 1월 5일(주)까지(연말연시)

② 24일 밤 7시 성탄전야 축제,

☆ 성경정독 : 요한복음에서 성경 퀴즈

☆ 가족별 찬양경연

☆ 유, 초, 중, 고, 청년부의 축하 경연

③ 25일 성탄절 새벽 전 교인 참여 축복기도회

④ 성탄절 낮 11시 예배 전교인 전 가족 참여 찬양예배

5. 금요 구역 연합 예배와 밤 기도회 (밤 8시)

27일 낮 11시 구역 연합예배로 드리며

밤 금요기도회는 호산나 찬양대 주관으로 드립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강옥진 님, 최혜정 님. 동부센트레벨 @

☺ 안미란 님, 최아인 님. | 주은모아 @

☺ 서주찬 님. 풍암동 주택

제 목 : 용서

성경말씀 : 마태복음 18 : 21 ~ 35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주시는 말씀은, “용서” 이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여쭙다.
“형제가 내게 범죄 하면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는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세 번까지 용서해 주고 아량을 베푸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이런 자세는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뛰어넘는 훨씬 아량 있고 아름다운 삶의 자세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하셨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일만 달란트” 빚을 졌다.
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자기와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25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많고 많은 돈이었다.

그러나 종이 주인에게 애원을 하니, 주인이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탕감해 주었다.

이에 종이 가벼운 마음으로 주인을 떠나가다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다.
동료가 당장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정을 말하며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간청하니, 종은 빚을 못 갚는 동료를 감옥에 가뒀다.
종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이 주인에게 가서 보고했다.

주인이 종을 불러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탕감해 줌 같이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하여 빚을 감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며, 종을 감옥에 가뒀다. 이어진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다.

위 말씀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종은 우리 인생들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도 갚지 못할 죄를 (만 달란트) 범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와 형벌을 다 용서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지은 가벼운(백 데나리온) 죄들을 용서하지 않고 양갓음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람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들도 용서 받지 못하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 받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힌 종은?
첫째, 자기 죄가 얼마나 많고 큰가를 몰랐다.

만 달란트는 백 데나리온의 60만 배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만 달란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죄들은 기껏해야 백 데나리온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600.000 인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죄는 1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고 많은 죄인가? 이 엄청난 죄들의 분량을 모르고 있었고, 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가를 모르고 있었다.

둘째, 죄를 용서 받음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다.

종이 용서받은 죄는, 자기와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25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많고 많은 죄였다. 딸이나 아들 하나를 팔아야 해결될 빚(죄)을 면제 받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거늘 자기와 자기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팔아도 갚지 못할 죄 값을 용서 받았는데 감사함이 없으니 진정 안타까운 일이다.

셋째,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없었다.

주인께서 종의 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종이 그만한 가치가 있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순전히 주인의 불쌍히 여김과 사랑에서였다. 그 큰 공훈과 사랑을 받은 종으로서 자기 동료에게 조금의 공훈과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함이 마땅함에도(33절), 그 작은 자비와 공훈도 없었기 때문에 주인의 진노를 사고 감옥에 갇혀 빚, 곧 죄의 값을 다 갚을 징벌을 받게 된 것이다.

만 달란트와 백 데나리온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억에 천원이다. 6억의 공훈과 사랑을 거저 받았으면서도 천원의 공훈이 없었다.

용서를 해 주면

1. 자기 죄의 벌을 온전히 면제 받는다. (마6:12-15)
2.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3. 자기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고 관계가 좋아진다.
- 불안, 초조, 스트레스, 몸의 질병, 마음의 병에서 해방된다.
4. 금년을 잘 정리하고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게 된다.
5.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천국 복락이 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내게로오라내가너희를쉬

게하리라 하나님

세상들이처럼사랑하사독생

자를주셨

으니이는

저를믿는

자마다별

망치않고

영생을얻

게하려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부목사 : 석 진 건 010-9061-0312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11 (새 찬송가 2, 42)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와 여쭙다.

◎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죄를 용서해 줌 같이

◎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겨 너희 죄를 서로 용서하라.

○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 아 멘 -

찬 송 : 193 (새 찬송가 259)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마태복음 18 : 21 ~ 35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얼마든지 용서하라 .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200 (새 찬송가 266)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섭기는 사람들 [1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김정란 이인순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홍의남 장로 (다음 문정용 장로)

기 도 : 이옥심 권사 (다음 김정환 장로)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사 회 : 이경순 집사 (다음 유정숙 집사)

기 도 : 홍희석 집사 (다음 김미숙 집사)

말씀증거 : 석진건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 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석진건 목사, 김정환 장로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후 3시 30분) 석진건 목사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사 랑 나 눔 안 내

교우나 이웃들 중에 쌀이나 김치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010-3861-7009)

2. 사 경 회 안 내

이병규 목사님의 사경회가 서울 창광교회에서

12월 30일(월)부터 14년 1월 2일(목)까지 열립니다.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 화 요 전 도 사 역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4. 송 구 영 신 예 배

31일(화) 밤 11시 부터 1월 1일(수) 01시까지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 금 요 기 도 회 (밤 8시)

3일 낮 11시 구역 연합예배로 드리며,

금요 밤 기도회는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6. 은 퇴 식 안 내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에, 이어서 홍의남 장로님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강옥진 님, 최혜경 님. 동부센트레벨 @

☺ 안미란 님, 최아인 님. 주은모아 @

☺ 서주찬 님 풍암동 주택